

# 언약, 하나님의 집, 다윗의 집

## 사무엘하 7장

### ◆ CHECK POINTS

- 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 ②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왜 중요합니까?
- ③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후에 다윗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난 시간 사무엘하 6장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1)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2) 블레셋을 이겨서 강성해지고 3)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으로 옮겨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 군사적 안정 이후 영적 번영을 열망하였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은 평안을 맛보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놓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 ◎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함 (1-3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느끼며 이전에 율법(신12:10-14)에서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였습니다. 다윗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겨우 천막 집에 놓여있는 것이 죄송스러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의지를 나단 선지자에게 피력하였습니다. 다윗은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께 더욱 시선을 두고 그 여력까지 모두 드리려하였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선한 마음을 읽고 모든 것을 행하여도 좋을 것이라고 응답합니다.

**삼하 7:1-3**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서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왕하 3:11**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갈 6: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윗 자신은 좋은 궁전에 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법궤는 허름하고 낡아빠진 장막에 두고 있던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칫 풍요로움이 은혜에 대한 망각으로 편안함이 나태함으로 흐르지 않도록 깨어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의중을 물었을 때 그는 그 선한 의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즉시로 이야기 하였으나 지난 법궤 운반 사건을 통해 알 듯 그 동기가 아무리 좋다하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기도를 통해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 우리가 길을 돌아가지 않을 최고의 방법입니다.

### ◎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심 (4-17절)

다윗을 만나 그의 선의를 축복하고 돌아온 나단은 그날 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생각이 그들과 다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의 계획을 거부하시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뜻은 분명히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종"이라고 부르시며 아브라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종의 계보"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솔로몬, 뜻: 평안)을 통해 위대한 사역을 이루실 것을 알려주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는 그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 하나님께서는 다윗 집을 악인들로부터 지켜 위대하게 하실 것이며 친히 그 아들과 자손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왕위와 나라를 견고케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2)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윗 집은 당대에만 번영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그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질 영적 가문을 뜻하며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집, 교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혹 다윗과 그의 후손을 죄악에 따라 징계하시는 일은 있더라도 절대로 그들을 향한 총애(寵愛, 사랑 위에 사랑)는 거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잘 살만한 때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한  
다윗의 마음

삼하 7:1-3  
왕하 3:11  
갈 6:10

자기 부귀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한 가문과  
뜻은 복된 약속

삼하 7:13-16  
시 65:4  
시 91:14,15  
렘 23:5  
히 6:10



"다윗을 조언하는 나단"  
(Nathan advises King David, 1672)  
by 마티아스 쉬하이츠 (Matthias Scheits)

- 삼하 7:13-16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 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 시 65:4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 시 91:14,15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 렘 23:5 여호와와 말씀이나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 히 6:10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존귀하게 여겼기에 가장 아름다운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가의 자손이라는 육적 계보를 넘어서 주의 말씀과 성전을 사랑하는 이들의 영적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영속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약속은 주의 말씀과 성전을 사모하는 이들의 가문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 ◎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간구의 기도 (18-29절)

####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감사와 간구의 기도

삼하 7:27-29  
왕상 4:6  
벤전 2:9,10

나단 선지자를 통해 미래의 성전 건축과 가문의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다윗 왕은 지극히 겸손한 기도를 드립니다. 1) 먼저 과거 비천한 자신과 자신의 집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미래에도 동행하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18-21절) 2) 또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며,(22-24절) 3) 마지막에 주의 종, 다윗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 은혜의 약속에 감격한 다윗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썼던, “주 여호와”라는 호칭을 거듭(5회) 부르며 감사 드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들도 지켜주시길 간절히 청하는 것입니다.

- 삼하 7:27-29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 왕상 4:6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들 그에게 주셨나이다
- 벤전 2:9,10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다윗은 그의 기도에서 “이제”와 “영원히”라는 표현을 각각 3번과 4번이나 사용하여 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이 지금부터 마침까지 유효할 것을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이은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 다윗의 인격적 관계와 친밀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구원과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씨앗”을 약속하실 때 주셨던 언약과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까지 이어져 성취된 “메시아 사상”의 기반이 되었고, 그 후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 공동체, 교회를 넘어서까지 이어진 영원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 ▣ 참고자료: 성경의 “다양한 언약들”(Covenants, ברית 베리트)



주님의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새롭고도 영원한 언약을 상징한다.

언약은 본디 대등한 자위의 당사자들이 맺은 계약 또는 강한 쪽과 약한 쪽이 맺은 불신 조약에 근거한 법률 관계를 뜻한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은 대등한 당사자들의 조약이 아니다. 늘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개인이나 이스라엘 온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 쪽에서는 구원과 축복을 확증하시고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킬 의무가 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가 여러 나타나 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창 15장), 하나님과 노아 사이의 언약(창 9:8-17),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시내 산 언약(출 19:24장),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삼하 7장 시 89:1-37), 렘 31:27-37에 예언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새 언약 등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이 있다(막 14:24; 고전 11:25). 신약 성경에서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새 언약의 창시자가 되신 것이다. (출처: 대한성서공회 용어사전)